

Methods' as rhetorical tools to awaken the perception of the readers.

Through studying the “Descriptive-Think-Pattern,” this study illuminates the importance and prevalence of the tradition of Ecclesiastes in relation to the wisdom literature in the Old Testament. In conclusion, the writer takes the view that the Preacher is a successor and innovator of the wisdom tradition of the Old Testament.

### Keywords

wisdom literature

Hebrew syntax

Descriptive-Think-Pat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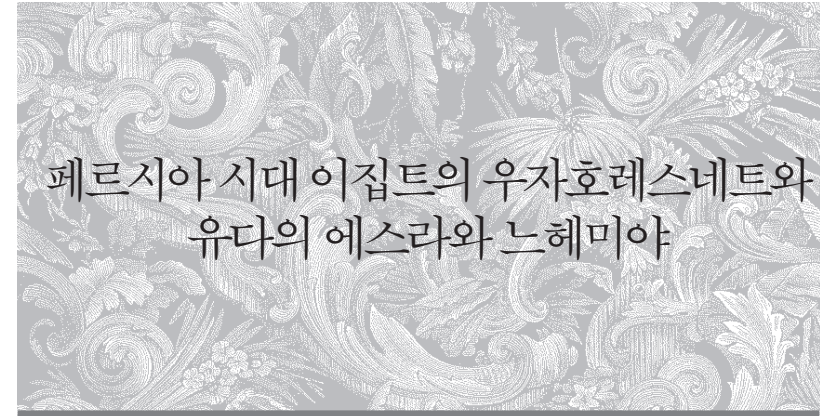
Synchronization Methods

monological thinking

■ 투고일: 2014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4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11월 06일



소형근(서울신대)

## 1. 서론

1964년 폰 라트(G. von Rad)의 한 편의 논문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느헤미야 회고록(Die Nehemiah-Denkschrift)과 고대 이집트 명문들(ägyptische Beamtenstelen) 사이에 유사점들을 지적하면서 이집트 명문들이 느헤미야 회고록에 아주 가까운 모델(nähere Modelle)이었음을 주장했다.<sup>1)</sup> 폰 라트가 지적한 이집트 명문들과 느헤미야 회고록 사이의 유사점들은 주인공들이 수행했던 일들, 특히 성전제의를 회복하고, 공동체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갔다는 점과 문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

1) G. von Rad, "Die Nehemia-Denkschrift", ZAW 76 (1964), 186.

어들이나 문구들의 공통점들이 많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sup>2)</sup> 그러나 시대와 장소가 서로 다른 문헌들 사이에 앞선 글이 이후에 나온 글에 어떤 영향을,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폰 라트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원전 6세기 후반 페르시아 시대에 이집트로 파견되었던 우자호레스네트(Udjahorresnet)라는 인물의 자서전적 명문을 분석하여, 이를 기원전 5세기 유다 지방의 지도자였던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교, 분석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원전 6-5세기에 있었던 페르시아 정책 방향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우자호레스네트 상

## 2. 우자호레스네트 명문 내용

이집트의 우자호레스네트(Udjahorresnet)의 명문이 현재는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동상(naophorus<sup>3)</sup> statue)에 기록된 이 명문은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통치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sup>4)</sup> 이 명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동상의 몸통(statue's body), 신실(naos),<sup>5)</sup> 뒤쪽 주추(back plinth), 밑바닥(base) 부분이다. 이 명문에 기

2) 윗글, 특히 179-181. 폰 라트는 이 연구논문을 통해 고대 이집트 시대에 고위직 관리의 자서전적인 명문들과 느헤미야 회고록이 많은 부분 커다란 일치를 이루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료들 사이에 문학적, 신학적 차이점으로 인해 느헤미야 회고록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186-187).  
3) '나오포러스'(naophorus)는 개인이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신실을 포함한 동상들을 말하는 용어다.  
4) M. Lichtheim, *Ancient Egyptian Literature: A Book of Readings Vol. III*,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37; P. F. O'Rourke, "WEDJAHORRESNET", *The Oxford Encyclopedia of Ancient Egypt* Vol. 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492-493; J. Blenkinsopp, "The Mission of Udjahorresnet and Those of Ezra and Nehemiah", *JBL* 106 (1987), 409.  
5) 나오스(naos)는 고대 이집트 신전에서 화강암 또는 단단한 석재를 만들어 모신 궤를 말한다.

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sup>

### [ 6열로 된 신실의 앞과 위 ]

(1) 왕이 오시리스-헤막(Osiris-Hemag<sup>7)</sup>) 신에게 수천의 빵과 음료, 황소와 닭, 그리고 좋고, 정결한 제물들을 바쳤다. 사이스(Sais)의 신들이 인정하는 의사장(chief physician) 우자호레스네트의 카(ka)<sup>8)</sup>를 위하여.

왕궁<sup>9)</sup>을 관장하는 오시리스 신에게 왕이 수천의 빵과 음료, 황소와 닭, 몰약과 연고, 좋은 제물들을 바쳤다. 모든 신들이 인정하는 자, 의사장 우자호레스네트의 카(ka)를 위하여.

(3) 영원의 주인이신 오시리스여! 의사장 우자호레스네트는 두 팔을 벌려 당신을 보호하며 안고 있습니다.<sup>10)</sup> 우자호레스네트가 당신(=오시리스)의 처소를 영원히 지키오니 오시리스의 카(ka)여! 모든 축복을 그(=우자호레스네트) 위에 임하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 [ 9열로 된 오른쪽 팔 아래 ]

(7) 신<sup>11)</sup>의 어머니, 위대한 네잇(Neith)이 인정하고, 사이스의 신들이 인정하는 자인, 왕자요, 고관이며, 옥새를 지닌 자요, 유일한 벗이며, 진정 사랑받는 왕의 친구요, 서기관이며, 서기관 의회의 감독관이요, 거대한 건물의 서기장이며, 궁중의 행정관이요,

6) M. Lichtheim, 윗글, 36-41.  
7) 사이스 지역과 기타 지역에서 오시리스 신을 부르던 아주 독특한 형태의 호칭이다.  
8) 고대 이집트에서 카(ka)는 인간 영혼의 일부이면서, 생명 원천의 본질로 이해되어 왔었다.  
9) 왕궁( wt-b t)은 직역하면 '벌집'(mansion of the bee)으로 오시리스 신을 예배하던 성소를 말한다. 사이스 지역에 있는 네잇 신전과 이 왕궁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G. Vittmann, G. Vittmann, "Ein Denkmal mit dem Namen der Königsmutter Esenchébe", *ZÄS* 103 (1976), 144.  
10) 이 표현은 신전상에 대한 우자호레스네트의 신앙심을 알리고자하는 목적이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우자호레스네트는 자신의 두 팔로 오시리스 신의 사당을 들고 있다.  
11) 태양신 '레'(Re)를 말한다.

(9) 상하 이집트 왕 케네미브레(Khenemibre)<sup>12)</sup> 아래서 왕이 총애하던 해군 사령관이자, 상하 이집트 왕 앙크카레(Ankhkare)<sup>13)</sup> 아래서 왕이 총애하던 해군 사령관이었던 우자호레스네트. 성들의 통치자가 세운 자, 페(Pe) 제사장의 우두머리, 레네프(rnp<sup>14)</sup>) 제사장, 호루스 눈의 제사장, 사이스(Sais)의 노모스(nome) 지역 페프투아네잇(Peftuaneith)을 관장하는 네잇의 예언자인 (11) 그(= 우자호레스네트)가 말하기를,

모든 땅의 위대한 지도자 캄비세스(Cambyses)가 이집트에 왔을 때 모든 민족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캄비세스가 이 땅 모든 곳을 정복하자 외국 민족들이 안정을 되찾았고, 그는 이집트의 위대한 통치자요, 모든 땅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sup>15)</sup>

그의 군주(=캄비세스)가 나에게 의사장 직을 맡겼다. (13) 그는 나를 왕궁 동료요, 행정관으로 자신의 곁에 머물게 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상하 이집트의 왕 메수티레(Mesutire)<sup>16)</sup>라 지어 주었다.

나는 그의 군주에게 사이스의 위대함을 알려 주었다. 즉, 태양신 레(Re)를 낳고, 레가 태어나기 전에 레의 탄생을 예고했던 레의 어머니인 위대한 네잇의 전당이 사이스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네잇 신전의 위대함을 알려 주었다. 즉, 네잇 신전은 사방에서 봐도 하늘이라는 것과, 네잇 성들의 위대함과 (15) 그곳에 있는 모든 남신들과 여신들과 왕궁의 위대함을 알려 주었다. 즉, 그곳은 하늘의 주인인 주권자<sup>17)</sup>의 처소이다. 레제넛(Resenet)과 메헤넛(Mehenet) 성소들과 레(Re)의 집과 모든 신들의 신비가 되는 아툼(Atum) 집의 위대함을 또한 알려 주었다.

12) 파라오 아마시스(Amasis)의 즉위명이다.

13) 파라오 프삼메티쿠스 3세(Psamitik III)의 즉위명이다.

14) 신명(divine name)을 말한다.

15)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복했던 사건에 대해 우자호레스네트가 캄비세스를 지지하는 보고다.

16) '레의 후예'(Offspring of Re)라는 의미로, 페르시아 캄비세스의 이집트식 즉위명이다.

17) 오시리스를 의미한다.

### [ 8열로 된 왼쪽 팔 아래 ]

(16) 성읍의 신과 모든 신들이 인정하는 자이며, 왕자, 고관, 옥새를 지닌 자, 유일한 벗, 진정 사랑받는 왕의 친구이자 의사장 우자호레스네트는 아템미르디스(Atemirdis)에서 태어났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18) 상하 이집트 왕의 주인되는 캄비세스에게 네잇 신전이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네잇 신전에 거주하던 모든 외국인들을 신전에서 추방하도록 탄원했다. 그의 주인은 (20) 네잇 신전에 거주하던 모든 외국인들을 추방하고, 신전 안에 있던 그들의 모든 집들과 그들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부수도록 명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신전 밖으로 나갔으며, 그의 주인은 네잇 신전을 정결케 만들도록 명령했고, 신전 모든 요원들<sup>18)</sup>에게 신전으로 되돌아올 것을 명령했다. (22) [...] 신전의 제사장들에게도, 그의 주인은 예전과 같이 신의 어머니, 위대한 네잇과 사이스의 위대한 신들에게 신성한 제물들을 바치도록 명령했다. 그의 주인은 예전과 같이 신들을 위해 모든 절기와 행렬을 행하도록 허락했다. 내가 그의 주인에게 사이스의 위대함을 알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 이런 것을 행하게 된 것이다. 즉, 사이스는 모든 신들의 전당이며, 모든 신들은 사이스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 [ 4열로 된 신실 밑의 왼쪽 ]

(24) 사이스의 신들이 인정하는 의사장 우자호레스네트가 말하기를, 상하 이집트 왕 캄비세스가 사이스에 입성했다. 그의 주인은 몸소 네잇 신전을 방문했다. 모든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네잇 신 앞에 오랫동안 엎드렸다. 그는 (26) 모든 성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의 어머니 위대한 네잇과 사이스에 있는 위대한 신들에게 가장 좋은 제물들과 많은

18) 신전을 떠났던 과거 신전 종사자들을 말한다.

제물들을 바쳤다. 내가 그의 주인에게 레(Re)의 어머니, 네잇의 위대함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다.

### [ 3열로 된 신실 밑의 오른쪽 ]

(28) 오시리스-헤막(Osiris-Hemag)이 인정하는 의사장 우자호레스네트가 말하기를, 그의 주인은 네잇 신전에 많은 제물을 바쳤다. 모든 왕이 예전에 행했던 것처럼, 그는 네잇 신전에서 영원의 주<sup>19)</sup>께 술을 따라 올렸다. (30) 내가 그의 주인에게 모든 왕이 신전에서 많은 제물을 어떻게 드렸는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다. 즉, 이 신전은 모든 신들의 영원한 전당이라는 신전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 [ 6열로 된 신실 왼쪽 벽과 동상의 옷 ]

(31) 사이스 노모스(nome) 지역의 신들이 인정하는 의사장 우자호레스네트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한 그의 주인의 명령을 따라 신의 어머니, 위대한 네잇에게 신성한 제물을 바쳤다. 나는 사이스의 여주인 네잇을 위해 종교적인 토대를 세웠다. 즉, (33) 선한 종이 그의 주께 행하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종교적인 토대를 세웠다.

나는 그의 성읍에 있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온 땅에 큰 혼란이 닥쳤을 때,<sup>20)</sup> 그 성읍 거민들을 그 큰 혼란으로부터 구하여 그 땅에는 그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강자와 대항했고, (35) 약자를 보호했다. 재앙이 약자에게 닥쳤을 때 나는 약자를 구했다. 그들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에 나는 그들을 위해 큰 은혜를 베풀었다.

19) '영원의 주'는 오시리스를 의미한다.

20) 온 땅에 임하게 된 큰 혼란은 아마도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를 암시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40-41 열에서 반복되고 있다.

### [ 6열로 된 신실 오른쪽 벽과 동상의 옷 ]

(37) 성읍 신이 인정하는 자, 의사장 우자호레스네트가 말하기를, 나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의 친구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이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세웠다. 나는 (39) 영원하신 그의 주인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비옥한 농지를 주었다. 나는 그를 위해 훌륭한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자녀들을 지원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안정되게 만들어 주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41) 온 땅에 붙어 닦았던 큰 혼란의 중심이 이 놈(nome) 지역에도 있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 [ 3열로 된 뒤쪽 주추 ]

(43) 왕자요, 고관이며, 옥새를 지닌 자요, 유일한 벗이며, 살아있는 자들의 예언자<sup>21)</sup>이자, 아테미르디스에서 태어난 의사장 우자호레스네트가 말하기를, 상하 이집트 왕의 주인인 영원하신 다리우스(Darius)는 그의 주인(= 다리우스)이 엘람(Elam)에 있었고, 그는 모든 외국 땅의 위대한 주인이며, 이집트의 위대한 통치자였을 때 - 생명의 집(House of Life)이 무너진 후 생명의 집을 세우고, 복원하도록 나에게 이집트로 갈 것을 명령했다. 외국인들이 나를 이리저리로 데리고 다녔으며, 그들은 두 땅의 주인이 명령한대로 나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나는 그의 주인이 나에게 명령한대로 했다. 나는 그들에게 좋은 가문의 사람들로 참모들을 붙여 주었다. 나는 (45) 그들이 모든 능력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학식 있는 사람을 붙여 주었다. 그의 주인은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잘 수행하도록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유익하고, 잘 알려진 많은 도구들을 다 제공해 주었다.

21) 이 표현은 모든 신들의 말을 대언하는 자들로서 '예언자'를 말한다.

그의 주인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도록 명령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환우들을 살리고, 모든 신들의 이름과 신들의 신전들과 제물들과 모든 절기들을 영원히 인정하는 것이 가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 [1열로 된 동상 밑바닥의 오른쪽]

(46) 의사장 우자호레스네트는 말하기를, 나는 그의 모든 영주들이 인정하는 자였으며, [...] 그들은 나에게 금으로 된 보물들을 주었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 [2열로 된 동상 밑바닥의 왼쪽]

(47) 네이이 인정하는 자, 그가 말하기를, “사이스에 있는 위대한 신들이여! 의사장 우자호레스네트가 행한 모든 선행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 땅에 영원히 기념되게 하옵소서!”

## 3. 우자호레스네트와 에스라

### 1) 지위

우자호레스네트는 기원전 6세기 후반<sup>22)</sup> 페르시아 제국이 임명한 고위직 관리였으며, 명문에서는 그가 오시리스(Osiris) 신을 섬기는 경건한 종교지도자이면서 서기관으로 나온다(7-9열).<sup>23)</sup> 또한 명문에는 의사장(chief physician)의 신분이 12회나 반복될 정도로 그의 ‘의사’ 신분이 강조되고 있다(1, 2, 3, 12, 17, 24, 28, 31, 37, 43, 46, 47열). 고대 이집

22) 다리우스 1세 통치 4년(기원전 518년)에 다리우스가 이집트를 방문하는데, 아마도 다리우스의 이집트 방문 전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우자호레스네트가 이집트에 파견되었으리라 본다. 참고, J. Blenkinsopp, *유태*, 409.

23) J. M. Miller and J.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448-469.

트에서는 의사직을 일반적으로 사제들이 맡았음을 감안할 때,<sup>24)</sup> 우자호레스네트는 사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비교하여 구약성서의 에스라 본문에는 에스라가 ‘제사장’(יִהְיֶה)이면서 ‘서기관’(סֹפֵר) 신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스 7:12, 21). 김경래는 기원전 6-4세기에 활동했던 ‘소페르’를 “율법에 대한 합법적인 해설자인 동시에 수호자”의 역할을 맡았던 자라고 말한다.<sup>25)</sup> 그런 이유로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칠 목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던 ‘소페르’로 짐작된다. 또한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불렸던 자였다. 에스라의 제사장 신분에 대한 진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에스라 7장 1-5절에서 저자(혹은 편집자)는 에스라를 광야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연결시키고 있다. 우자호레스네트가 종교지도자(사제)이면서 서기관의 신분으로 이집트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에스라 또한 유사하게 ‘소페르’이면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 기원전 6-5세기 페르시아의 정책은 제국의 관할 구역들에서 본토민 출신의 고위 관리들을 활용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sup>26)</sup>

### 2) 임무

우자호레스네트는 이집트 사이스 왕조(Saitic Dynasty) 마지막 두 명의 파라오였던 아마시스(기원전 570-526년)와 프삼메티쿠스 3세(기원전 526-525년) 시대에 이집트 해군 사령관으로 활동했지만(9열), 페르

24) 프랑수아 트라사르, 『파라오 시대 이집트인의 일상』 (강주헌 옮김) (서울: 북폴리오, 2005), 115.

25) 김경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쿼타 연구”, 『성경원문연구』 1호 (1997), 123.

26) J. Blenkinsopp, *유태*, 414. 우자호레스네트와 유사한 경우가 밀레투스의 히스티에우스(Histiaeus)이다. 다리우스 1세는 히스티에우스를 수사(Susa)로 데려 갔으며, 후에 그를 이오니아 사건의 고문관(counselor)으로 임명했다. 아테네인들의 지지를 받았던 폭동 때, 다리우스 1세는 히스티에우스가 페르시아 평화(*pax Persica*)의 회복에 공헌하리라는 생각과 함께 그를 고국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우자호레스네트와 달리 히스티에우스는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모반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결국 생포되어 죽게 된다(Herodotus 5:23-24).

시아의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침략한<sup>27)</sup> 이후 페르시아인들과 활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캄비세스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게 되자 우자호레스네트는 캄비세스에게 이집트의 관습들과 종교적 생각들, 그리고 종교적 의식들을 소개했다(14-15줄). 이것이 우자호레스네트가 캄비세스 시대에 이집트를 위해 하고자 했던 첫 번째 임무(mission)였다. 우자호레스네트의 두 번째 임무는 신전에서 외국인들을 추방하고(18-21줄), 과거 성전 요원들을 복귀시키는 일이었다(21줄). 이집트의 제의를 복원시킨 후 우자호레스네트는 캄비세스와 함께 수사(Susa)로 돌아오는데, 캄비세스는 도중에 죽게 된다.<sup>28)</sup> 우자호레스네트는 캄비세스 이후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른 다리우스 1세(기원전 521-486년) 시대에 자신의 고국 이집트로 파견된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리우스 1세가 이집트를 방문했던 기원전 518년 이전의 어느 시기로 보인다. 우자호레스네트의 이집트에서 세 번째 임무를 명문에서 보게 되는데, 그는 사이스(Sais)와 그 밖의 지역에 있던 “생명의 집”(House of Life)을 재건하고자 했다(43-44줄). 생명의 집은 일반적으로 종교적이고, 주술적이며, 의술과 관련된 장소였으며,<sup>29)</sup> 우자호레스네트는 이집트에 와서 붕괴된 생명의 집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또한 명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대사적 조류를 통해 짐작해 볼 때, 우자호레스네트는 다리우스 통치 초기에 이집트의 사법조직을 재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아르안데스(Aryandes)의 폭동을 진압한 이후(Herodotus 4:166),

다리우스는 이집트 법들을 새롭게 재정비하기 위해 지혜자들, 사제들, 서기관들에게 일정한 임무를 주도록 명령했다. 이러한 내용이 이집트의 민용문자 연대기(Demotic Chronicles: 이집트 국립도서관의 215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파라오의 법인 시민법과 신전법이라 할 수 있는 종교법 사이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으며, 이 두 법과 관련하여 각각의 임무가 부여되고 있다.<sup>30)</sup> 다리우스는 그의 통치 3년(기원전 519-518년)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우자호레스네트가 생명의 집 재건을 위해 이집트에 머물러 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우자호레스네트의 또 다른 임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담당자들에게 시민법과 종교법을 편찬하게 하여, 그 법대로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하는 일이었다.<sup>31)</sup>

이와 비교하여 구약성서의 에스라 본문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에스라의 임무가 소개되고 있다. 에스라의 첫 번째 임무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이고(스 7:10), 두 번째 임무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왔으며(스 7:14), 세 번째 임무는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전달할 목적으로 왔다(스 7:15-20).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를 엄벌할 목적으로 왔다(스 7:26). 에스라의 첫 번째 임무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근거하지 않지만, 나머지 임무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으며, 페르시아 왕의 조서 형식으로 제국에서 지시한 형태로 되어 있다.

27) 캄비세스의 이집트 침략은 기원전 525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이집트에는 제27왕조가 시작된다.

28)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캄비세스는 시리아의 아그바타나(Agbatana)에서 죽었으나(3:64), 요세푸스에 따르면 캄비세스는 다마스쿠스(Damascus)에서 죽었다(*Ant.*, 11.3.9-64).

29) A. H. Gardiner, "The House of Life", *JEA* 24 (1938), 164-167, 175. 가디너에 따르면 "생명의 집"에는 제사장의 신분이었던 서기관들이 사료들, 법률들, 제의들과 관련된 일들을 담당했다. 예를 들면, 축제 때 행해야 할 적절한 행동, 정결한 짐승들에 대한 확인, 이집트 종교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결정 등을 다루었다(윗글, 160, 170, 174, 176).

30) W. Spiegelberg, *Die sogenannte demotische Chronik des Pap. 215 der Bibliothek Nationale zu Paris* (Leipzig: Hinrichs, 1915), 30-32; N. Reich, "The Codification of the Egyptian Laws by Darius and the Origin of the Demotic Chronicles", *Mizraim* 1 (1933), 178-185.

31) 민용문자 연대기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W. Spiegelberg, *윗글*, 32; N. Reich, *윗글*, 180.

### 3) 유사점

에스라의 임무는 우자호레스네트의 활동과 비교하여 두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그 첫 번째는 우자호레스네트가 레(Re)의 어머니, 네이트(Neith)의 전당인 사이스(Sais)에서 제의를 회복했듯이, 에스라 또한 “예루살렘 여호와와 성전을 아름답게 할”(스 7:27) 목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다. 에스라는 유다 지방에 오기 전에 레위 사람들과 다른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했고(스 8:15-20),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가져온 성전 그릇들과 금은 보물들을 성전 제사장들에게 건네주었으며(스 8:24-30),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골라(גולה) 그룹의 가정을 해체할 것을 명령했고(스 10:1-5), 심지어는 이들을 골라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גולה לקה)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스 10:8). 이러한 모습은 토라에 근거하여 제의를 회복하고자 했던 에스라의 임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두 번째는 우자호레스네트가 민용문자 연대기의 언급대로 사법체계를 재조직했던 것처럼, 에스라 역시 사법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에는 종교 지도자와 세속 지도자 사이에 서로 다른 법들이 존재했고, 이러한 서로 다른 법들로 재판행위가 진행되어 왔었다(대하 19:5-11).<sup>32)</sup> 이런 시대 상황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종교법과 “왕의 명령”, 즉 시민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여 죄 값을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도록(스 7:26) 판단하고, 지시하기 위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다. 이 두 가지 개혁적인 역할이 시대는 다르지만,<sup>33)</sup> 페르시아 왕이 파견한 두 사람의 동일한 임무였고, 동일한 사역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역대하 19장 5-11절은 여호사밧의 사법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으로, 포로 이후 상황을 반영한 본문이다. 이 본문의 역사성 여부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소형근, “여호사밧의 사법개혁”, 『구약논단』 40집 (2011년 6월), 86-104.

33) 우자호레스네트가 대략 기원전 518년경에 이집트를 방문했다면, 에스라는 기원전 458년경에 예루살렘 도착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60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 [Excursus: 생명의 집]

생명의 집은 사제들이 운영하던 지식의 센터였다. 아스만(J. Assman)의 주장에 따르면, 생명의 집은 우주적, 정치적, 사회적 삶의 전 과정을 보존하고, 지켜가기 위한 문화의 중심지였다.<sup>34)</sup> 이러한 생명의 집은 고대 이집트의 아비도스(Abydos), 아크넴(Akhmim), 에스나(Esna), 에드푸(Edfu), 콕토스(Koptos), 멤피스(Memphis), 아케타텐(Akhetaten) 등에 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케타텐만이 고고학자들이 확인한 유일한 생명의 집이다.<sup>35)</sup> 고대 이집트 생명의 집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생명의 집은 상당히 큰 도시와 중앙 신전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다.<sup>36)</sup> 생명의 집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후기 고왕국 시대(Late Old Kingdom)였다. 생명의 집의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문헌들로부터 추측컨대 생명의 집은 역사와 관련되어 있고, 책을 보관하고, 책을 출판해 내며, 서기관들과 사제들의 가르침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생명의 집과 저술을 연결하는 가장 오래된 증거는 중왕국 시대(Middle Kingdom)에 생명의 집의 서기관이었던 케쿠(Keku)라는 인물이 기록한 석비다. 또 다른 서기관은 의학 서적들이나, 의사 조직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며, 그의 신분은 의사장(Chief Physician)의 신분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후기에는 서기관인 페프투아네이트(Peftuaneith)와 우자호레스네트가 의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생명의 집 재건에 활약하게 된다.<sup>37)</sup>

34) J. Assman, *The Mind of Egypt: History and Meaning in the Time of the Pharaoh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73.

35) F. Dunand & Ch. Zivie-Coche, *Gods and Men in Egypt: 3000 BCE to 395 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102.

36) A. R. David, *Handbook to Life in Ancient Egy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03-204.

37) <http://www.digitalegypt.ucl.ac.uk/museum/museum2.html>

## 4. 우자호레스네트와 느헤미야

### 1) 지위

명문에 의하면 우자호레스네트의 지위(혹은 신분)가 의사장, 고관, 옥새를 지니고 있는 자, 왕의 친구, 서기관, 서기관 의회의 감독관, 거대한 건물의 서기관 대표, 궁중 행정관, 해군 사령관, 사제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구약성서 느헤미야 본문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지위는 단 두 가지로,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왕의 술관원(ἰσπῆς)이었고(느 1:11), 유다 지방에서는 총독(ἡγεμῶν)이었다(느 5:14, 18; 8:9; 10:1; 12:26).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이었다는 것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큰 신임을 입고 있었다는 증거이며,<sup>38)</sup> 아닥사스다는 왕의 총애를 입고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지방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유다 지방에 파견했던 것이다.<sup>39)</sup> 이처럼 자신에게 특정한 임무를 부여하여 지역 행정구역에 파견하는 일은 페르시아 시대에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예를 이집트의 우자호레스네트나 밀레투스의 히스티에우스, 유다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다.

### 2) 임무

우자호레스네트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은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무엇이였을까?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파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당해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던 사건 때문이었다(느 1:3).<sup>40)</sup> 모르겐스테른(J. Morgenstern)은 이 사건을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방문 40년 전(기원전 486년경)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시대의 소요사건으로 해석하지만,<sup>41)</sup> 그럴 경우 사건발생과 느헤미야 1장 사이에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보다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10여 년 전에 있었던 총독 메가비수스(Megabyzus)의 폭동과 연결 짓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sup>42)</sup> 결과적으로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행을 요청하게 되는데(느 2:8), 이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임무였다. 이 첫 번째 임무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직접 허락받았던 처음이자, 마지막 미션이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느헤미야의 또 다른 임무에 대해서는 그가 유다 지방에서 수행했던 일들을 통해 역으로 그의 미션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외에도 성전 요원들을 재정비했으며, 그들을 지원해 주었고(느 7:1; 11:22-24; 13:10-14, 30-31), 노래하는 자들, 즉 레위 사람들에게 왕의 명령을 따라 날마다 할 일을 주었다(느 11:23).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총회인 성전 모임에서 이방인들을 추방시켰고(느 13:1), 암몬 사람 도비아와 그의 모든 소유를 성전 방에서 내쫓고, 정결케 했다(느 13:8-9). 이처럼 성벽 재건 이외에 느헤미야의 사역을 정리하면, 느헤미야는 무질서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제의(성전요원 재정비, 성전에서 이방인 추방 등)를 회복시키는 것이 느헤미야의 또 다

38) H. G. M. 윌리암슨, 『에스라-느헤미야』 (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349. 토빗서 1장 22절에는 아히칼(Ahikar)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는 술 관원이었고, 옥새를 지키는 자였으며, 재정을 맡은 자였고, 예살합돈이 그를 2인자로 삼았다고 알려준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궁중의 술관원의 위상을 알려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39) 소형근, "히브리어 '페하'에 대한 구약성서와 성서 외적 자료들 연구",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266-289.

40) 느헤미야 대적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형편이 되지 못했으며, 돌들이 불에 타서 흠무더기가 되었다(느 4:2). 아마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유다와 예루살렘 파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느 6:15).

41) J. Morgenstern, "Jerusalem-485 B.C.", *HUCA* 27 (1956), 101-179; *HUCA* 28 (1957), 15-47; *HUCA* 31 (1960), 1-29.

42) 메가비수스는 폭동을 통해 두 번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후에 아닥사스다 왕과 타협했고, 아닥사스다로부터 용서를 청하게 된다. J. M. Bigwood, "Ctesias Account of the Revolt of Inarus", *Phoenix* 30 (1976), 1-25.

른 임무였고, 유다 지방에서 페르시아 왕의 명령(혹은 법)을 지키고, 실행하는 일이 느헤미야의 새로운 임무였다(느 11:23).

### 3) 유사점

우자호레스네트와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이들이 친페르시아적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명문에서 우자호레스네트는 페르시아 캄비세스를 찬양하는 글을 적고 있다. 캄비세스가 이집트에 오면서 모든 땅의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고, 모든 민족들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칭송하고 있다. 그러한 캄비세스 곁에서 우자호레스네트는 동료로서, 행정관으로서 활동했음을 자랑하고 있다(11-13월). 그런 점에서는 느헤미야와 일치한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의 관리인 술관원이었으며(느 1:11), 왕과 독대하여 자신의 계획을 관철해 낼 정도로 왕과 친밀감을 유지하던 사이였다(느 2:1-7).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친페르시아적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둘째는 고국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고국 땅의 회복을 위해 임무를 띠고 고국을 방문했다는 점이다.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사망(기원전 522년)은 바빌론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레반트 지역과 이집트 지역에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몰고 왔다.<sup>43)</sup> 캄비세스의 사망 이후 페르시아 제국 거의 전역에 폭동이 일어났고, 이 폭동에 이집트인들도 참여하게 되었다.<sup>44)</sup> 이때 우자호레스네트는 캄비세스 사후 페르시아의 수사(Susa)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기(기원전 5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학개는 이 폭동과 소요사태에 대해 암시적으로 약술하고 있다. 야웨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학 2:6, 21),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뒤엎고, 그들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

고 예언했다(학 2:22). 이것은 예언자 학개가 제국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사태를 바라보면서 야웨의 개입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5)</sup> 이러한 시기에 우자호레스네트는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의 명령을 받고 고국 이집트로 향한다. 이집트의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고, 이집트의 재건을 위한 목적이었다(43-44월). 마찬가지로 레반트 지역이 소요 가운데 있을 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는 자신의 술관원 느헤미야를 유다지방에 파견하게 되었다. 물론 구약성서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의 요청으로 기록되어 있지만(느 2:5), 어쩌면 아닥사스다가 원했을 수도 있다. 결국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고(기원전 445년), 무너지고, 불탄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으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느 6:15). 이런 점에서 우자호레스네트와 느헤미야는 유사한 배경을 갖는다.

셋째는 우자호레스네트와 느헤미야가 자서전적인 글에 자신들의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토(E. Otto)는 신에게 자신의 선행이나 업적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고대 자서전적 명문들의 장르적 특징이라고 말한다.<sup>46)</sup> 명문에서 우자호레스네트가 자신의 모든 선행을 신들에게 기억해 달라고 하듯이(47월),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했나? 느헤미야의 기억 요청은 주로 느헤미야 13장에 집중되고 있다. 느헤미야 13장에는 3번에 걸쳐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다.<sup>47)</sup> 첫째는 레위 사람

43) 랄프 스미스, 『미가-말라기』 (채원석·재훈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230.

44) J. Blenkinsopp, *유태*, 415.

45) 그렇다고 해서 학개가 페르시아에 대항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정치적 행동주의자로 활약했던 것은 아니다. 캄비세스 죽음으로 인한 제국의 혼란 속에서 학개는 야웨의 개입을 예의주시했던 것이다. 참고, 랄프 스미스, *유태*, 230.

46) E. Otto, *Die Biographischenn Inschriften der Ägyptischen Spätzeit* (Leiden: Brill, 1954), 87-101.

47) 느헤미야 5장 19절("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에도 예외적으로 기억 모티브가 나오고 있다. 느헤미야 5장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던 일에 대해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들로 성전에서 다시 일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자신의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다(느 13:14). 둘째는 안식일 규정을 개선한 이후이고(느 13:22), 셋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고, 이방 사람을 쫓아낸 후에 자신의 소행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다(느 13:31). 따라서 우자호레스네트와 느헤미야는 자서전적 글에서 동일한 형식의 문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는 우자호레스네트와 느헤미야가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인 겸 수호자가 되어 주었다는 점이다. 명문에는 우자호레스네트의 이집트 개혁과 생명의 집 재건에 거침없는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자호레스네트에게도 반대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명문에는 이들을 “강자”로 표현하고 있다(34절). 강자는 아마도 노모스(nome) 지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페르시아 세력으로 보인다. 우자호레스네트는 후에 페르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초기에는 이집트의 해군 사령관으로서 강자인 페르시아 세력에 대항하여 약자를 보호했으며, 약자를 구하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35-36절).<sup>48)</sup> 느헤미야 또한 대적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에게는 내부 적들과 외부 적들이 있었다. 느헤미야의 모든 적들은 강자에 속한 그룹들이었다. 먼저 내부 적들로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던 귀족들과 민장들(느 5:7), 외부의 적들과 내통했던 제사장과 귀족들(느 6:15-19; 13:4), 그리고 정체불명의 예언자들(느 6:10-14) 그룹이 있었다. 그리고 외부 적들로는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느 2:19) 등이 있었다. 이들 모두는 각 지역의 최고 통치자들이었다.<sup>49)</sup> 느헤미야는 내부 강자들과 싸움에서 약자의 편을 들어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며(느 5:1-19), 외부 강자들의 방해공작과

48) 우자호레스네트의 이러한 행동은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명문의 40-41절에서 반복하고 있다.

49) 소형근, 『느헤미야』 (연세신학백주년기념성서주석 1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43-44.

싸움에서 지략으로 이겨내 예루살렘 성벽재건을 마무리했다(느 6:15).

## 5. 차이점

이미 언급했듯이 이집트의 우자호레스네트와 유다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는 유사점들이 상당히 많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집트 명문과 구약성서 사이에는 차이점들 또한 존재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 1) 신앙적 관점

우자호레스네트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동일하게 페르시아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각자의 신앙적 관점에 따라 개혁을 단행했다는 점이다. 즉, 우자호레스네트의 업적이 기록된 ‘나오포러스’(naophorous)에는 우자호레스네트가 오시리스(Osiris) 신(神)을 신실하게 모시고 서 있는 자태를 보여 주는데, 오시리스에 대한 그의 신실함은 오시리스에게 정결한 많은 제물을 바쳤음을 통해 알 수 있다(1-3절). 그런데 우자호레스네트는 오시리스 외에도, 신의 어머니 네잇(Neith)을 찬양하고, 네잇 신전의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신앙심 또한 명문에 묘사되고 있다(14-23절). 그밖에도 우자호레스네트는 태양신 레(Re)와 아툼(Atum) 신의 위대함을 또한 찬양한다(15절). 결국 우자호레스네트는 다신론적 신앙관에 입각하여 이집트 신들인 오시리스, 네잇, 레, 아툼 신(神) 모두를 찬양하며, 개혁을 주도해 나갔다. 이에 비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토라(Torah)에 입각한 개혁을 단행하는데(스 9-10장; 느 5:10; 13장), 이들의 공통적인 개혁이 되는 이방인과 잡혼금지 규정은 신명기(7:3-4)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자호레스네트가 다신론적 관점에서 이집트 개혁을 주도했다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야웨신앙적 관점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개혁을 이끌었다.

## 2) 기록 목적

이집트 명문과 히브리 본문 사이에는 기록 목적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자호레스네트는 본래 이집트의 해군 사령관이었으나(9월), 기원전 525년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침공하여 정복한 이후 그의 역할이 달라졌다. 즉, 우자호레스네트가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의 최측근으로 변신한 것이다(7월). 우자호레스네트의 이러한 신분 변화가 이집트 백성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우자호레스네트는 매국노, 변절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비록 우자호레스네트가 이집트 백성과 신전을 위해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했지만, 여론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이드(A. B. Lloyd)가 지적한대로 우자호레스네트 명문은 자신을 변호할 목적(apologetic dimension)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50)</sup> 자기 변호적인 글들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역설적으로 자신의 위대한 업적들을 자화자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인적 위대함을 과시할 목적으로 집필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속한 유대교 분파<sup>51)</sup>와 느헤미야가 속한 유대교 분파의 사상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sup>52)</sup> 또한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유대교 공동체에게 토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실천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 6. 결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페르시아 시대 이집트에서 활동했던 우자호레스네트와 유대에서 활동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들이 있다. 이들의 지위나 신분상의 유사점들도 있었고, 이들이 수행했던 임무들도 매우 유사했다. 이들이 자신들의 고국에 파견되었던 시기 또한 큰 차이가 없었다.<sup>53)</sup>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페르시아 정부에서는 광활한 제국의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그리고 변방 지역들의 소요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친페르시아 본토민 고위 관리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파견시켰고, 파견하되 그들로 하여금 왕의 명령(시민법)을 속주에서 실행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파견된 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제의개혁을 단행했으며, 무너진 종교법을 회복시켜 공동체와 성전을 정결케 했다.<sup>54)</sup> 우자호레스네트와 느헤미야는 자서전적 기록물에 자신들의 선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사이스의 신들과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자호레스네트 명문이 에스라-느헤미야서 본문보다 수십 년 앞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후자가 전자를 차용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며, 이런 기념 명문의 형식적 특징들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보편적이었기 때문이다.<sup>55)</sup> 더불어 우자호레스네트는 다신론적 이집트 신앙으로 개혁을 진행했던 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야웨 신앙에 입각하여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개혁을 주도했다. 또한 우자호레스네트가 명문을 기록한 목적이 자신을 변호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대교 공동체에게 토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실천을 목적으로 기록했던 것이다. 이집트 명문과 히브리 본문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점들 또한 존재한다.

50) A. B. Lloyd, "The Inscription of Udjahorresnet: A Collaborator's Testament", *JEA* 68 (1982), 166-190.  
51) 에스라를 지지하는 분파는 '하레딤'이었으며(스 9:4; 10:3), '하레딤'이 에스라 개혁을 주도한다(스 10:3-4). 참고, 소형근, "역사적 에스라와 그의 지지그룹 '하레딤'(~ydrx)", 『성경원문연구』 35호 (2014년 10월), 70-86.  
52) 조셉 블렌킨소프, 『윗글』, 224-228.

53) 우자호레스네트는 기원전 518년경에 이집트로 파견되었고(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기원전 516년경에 중앙아시아, 이집트 지역을 방문한다. 그 이전에 다리우스는 우자호레스네트를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라는 기원전 458년경에, 느헤미야는 기원전 445년경에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파견되었다. 우자호레스네트와 에스라, 느헤미야 사이에는 60~73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를 갖는다. 이들 모두는 페르시아 시대에 고국으로 파견된 자들이다.  
54) 조셉 블렌킨소프, 『유대교의 기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소형근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142.  
55) 윗글, 143.

## 7. 참고문헌

- 김경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쿤타 연구”, 『성경원문연구』 1호 (1997), 118-144.
- 랄프 스미스, 『미가-말라기』 (채천석/채훈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 소형근, “여호사밧의 사법개혁”, 『구약논단』 40집 (2011년 6월), 86-104.
- \_\_\_\_\_, “히브리어 ‘폐하’에 대한 구약성서와 성서 외적 자료들 연구”,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266-289.
- \_\_\_\_\_, 『느헤미야』 (연세신학백주년기념성서주석 1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_\_\_\_\_, “역사적 에스라와 그의 지지그룹 ‘하레담’(חרדים)”, 『성경원문연구』 35호 (2014년 10월), 70-86.
- H. G. M. 윌리엄슨, 『에스라-느헤미야』 (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 조셉 블렌킨소프, 『유대교의 기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소형근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프랑수아 트라사르, 『파라오 시대 이집트인의 일상』 (강주현 옮김), (서울: 북폴리오, 2005).
- Assman, J., *The Mind of Egypt: History and Meaning in the Time of the Pharaoh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 Bigwood, J. M., “Ctesias Account of the Revolt of Inarus”, *Phoenix* 30 (1976), 1-25.
- Blenkinsopp, J., “The Mission of Udjahorresnet and Those of Ezra and Nehemiah”, *JBL* 106 (1987), 409-421.
- David, A. R., *Handbook to Life in Ancient Egy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Dunand, F., and Zivie-Coche, Ch., *Gods and Men in Egypt: 3000 BCE to 395 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 Gardiner, A. H., “The House of Life”, *JEA* 24 (1938), 157-179.
- Lichtheim, M., *Ancient Egyptian Literature: A Book of Readings Vol. III*,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 Miller, J. M., and Hayes, J. H.,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 Morgenstern, J., “Jerusalem-485 B.C.”, *HUCA* 27 (1956), 101-179; *HUCA* 28 (1957), 15-47; *HUCA* 31 (1960), 1-29.
- O’Rourke, P. F., “WEDJAHORRESNE”, *The Oxford Encyclopedia of Ancient Egypt* Vol. 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Otto, E., *Die Biographischenn Inschriften der Ägyptischen Spätzeit* (Leiden: Brill, 1954), 87-101.
- von Rad, G., “Die Nehemia-Denkschrift”, *ZAW* 76 (1964), 176-187.
- Reich, N., “The Codification of the Egyptian Laws by Darius and the Origin of the Demotic Chronicles”, *Mizraim* 1 (1933), 178-185.
- Spiegelberg, W., *Die sogenannte demotische Chronik des Pap. 215 der Bibliothèque Nationale zu Paris* (Leipzig: Hinrichs, 1915).
- Vittmann, G., “Ein Denkmal mit dem Namen der Königsmutter Esenchébe”, *ZÄS* 103 (1976), 143-144.
- <http://www.digitalegypt.ucl.ac.uk/museum/museum2.html>.

## 검색어

우자호레스네트

에스라

느헤미야

생명의 집

페르시아 정책

# The Egyptian Udjahorresnet and The Jewish Ezra and Nehemiah in the Persian Period

Hyeong-Geun So,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Egyptian Udjahorresnet and the Jewish Ezra and Nehemiah in the Persian period. For example, their positions, status, and activities, and also the missions that they carried out. The times when they were dispatched to their homelands show little difference. Udjahorresnet was sent to Egypt by Darius I (518 B.C.), Ezra to Judah and Jerusalem by Artaxerxes I (458 B.C.), and Nehemiah also by Artaxerxes I (445 B.C.). Persian kings dispatched the imperial officials to their homelands in order to govern the extensive empire effectively and to suppress the disturbances in the border areas, except Babylon, and thus they practiced orders (= civil laws) of the

Persian kings in their homelands. In addition, they carried out the cultic reform and established the collapsed ritual ceremonies according to their religious beliefs, and their community and temple were cleansed. Udjahorresnet and Nehemiah prayed to the gods of Sais and to Yahweh Elohim respectively, for the remembrance of the good they had done in the autobiographical document. However, although the Udjahorresnet inscription was older than the documents of Ezra and Nehemiah, one cannot accept the argument that the latter borrowed from the former. It is nothing more than a conjecture,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and connection for it. After considering all the factors, this paper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This formal type of the autobiographical document was exceedingly universal in the Persian period.

## Keywords

Udjahorresnet

Ezra

Nehemiah

House of Life

Persian Policy

■ 투고일: 2014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4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11월 06일